

47년 10% 묶인 부가세 개편될까

지난해 56조 세수 펴크... 올해도 법인세 감소에 재현 우려↑

1977년 이후 47년간 변하지 않은 10% 부가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출산·육아 용품과 가공식품 등 서민 체감도가 높은 생필품에 대한 세율은 낮추고 그렇지 않은 재화 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일부 품목에 대해 부가세율은 낮춰 고공행진하는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생필품이 아닌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세율을 상향 조정해 서민경제 안정과 저성장·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가세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발생하는 부가세에 대해 붙는 일반 소비세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7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부가세율을 인상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될 적이 없고 부가세 외에도 다른 세목에서 증세 여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부가세율을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가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코로나19 시기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가 1126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빚이 크게 증가했다. 더욱이 지난해 56조원 세수 펴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n 위기감이 감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올해 기준 평균 부가세율보다 우리나라 세율이 10% 포인트(p) 가까이 낮은 것도 부가세율 상향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뒷받침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2년 국정감사

를 앞두고 발간한 이슈 분석에 따르면 OECD 주요국의 평균 부가세율은 19.3%로 유럽 주요국들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정적자를 해소하고자 부가세를 올렸다. 2010년 이후론 25개국이 인상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은 4.3%다. OECD 국가 평균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은 6.7%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 32위로 부가세 부담 수준이 낮은 편에 속한다.

상황이 이렇자 최근엔 품목에 따른 차등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민 체감도가 높은 재화에 대해서 부가세율을 대폭 낮추고 그렇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다수 국가가 부가세 부과를 복수세율 체계로 유지하

고 있는 것은 틀모양이 될 수 있다. 복수세율 율을 도입하면 경제 상황 등에 따라 감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 체감도가 높은 생필품에 대해서 10% 미만의 부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품목은 15%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수 있다"며 "부가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설득을 잘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일부에선 부가세율 인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부가세를 올릴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향후 국제유가와 환율 변동성에 따라 국내 물가 불안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전 국민이 소비할 때마다 세금을 일괄적으로 거둬들이는 부가세 인상에 나설 경우 국민적 저항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뉴시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난 9일 전주 상그릴라 C.C에서 제9회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제9회 회원의 날' 성료

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 회원 대표이사 132명 참석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9일 전주 상그릴라 C.C에서 회원들의 사기 진작과 결속을 다지는 '제9회 회원의 날' 행사를 회원 대표이사 1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회원 상호 간 화합을 위한 친선행사와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회원사 안전관리 역량강화와 대응력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을 주제로 신세계 노무법인 이상영 노무사 강연이 있었다.

소재철 회장은 "지난해는 새만금 챔버리 파행 이후 국회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올해는 지난 4월 9일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

수시 배정 해제' 조치를 기점으로 새만금 SOC 사업 정상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며 "주요 건설 자재의 수급불안과 가격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지만 적정공시비와 적정공기 확보를 위한 발주처 관행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원 간의 화합과 급변하는 법과 제도에 대한 교육과 강연 등을 수시로 제공해 임직원 역량 강화를 통한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도내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 업체 참여를 한층 더 추진하여 회원사 일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한국전력 전북본부는 8일 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와 함께 '민경강-전주천 일대 하천 정비 플로깅 활동'을 시행했다.

한전 전북본부 장애인고용공단 합동 환경정화 활동 시행

한국전력 전북본부(본부장 연원섭)는 지난 8일 ESG경영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와 함께 '민경강-전주천 일대 하천 정비 플로깅 활동'을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전 전북본부 직원들은 한전 전북본부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예정인 장애인고용공단 전주맞춤훈련센터 훈련생들과 짝을 이루어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여 운동하고 여가를 즐기는 하천 주변을 플로깅하며 정리했다.

연원섭 한전 전북본부장은 "지역사회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공동캠페인을 추진할 것이고 지역 환경보전을 위해서도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염규문 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장은 "맞춤훈련센터 훈련생들이 한전과 함께 봉사활동의 기쁨을 알게 되어서 뜻깊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주센터, 전자카드제 이행 활성화 캠페인

건설올패스카드 발급·종합상담서비스, 원스톱 서비스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 전주센터(지사장 장성호, 이하 공제회)는 하나은행, 우체국과 함께 지난 8~9일 이틀에 걸쳐 익산사이그랜드파크(지애스건설), 군산 신역세권 E2 공동주택 신축공사(에이치엘디앤아이 한다) 현장을 찾아가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는 2024년부터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건설올패스



건설근로자공제회 광주지사 전주센터는 지난 8~9일 도내 건설 현장들을 찾으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카드)를 발급받고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앱'으로 출·퇴근을 기록하여, 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누락 방

지 및 건설현장의 효율적인 인력·안전관리 등의 체계화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번 캠페인은 건설근로자가 평일 업무시간에 공제회 또는 은행 방문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현장에 이동상담서비스(공제회)와 금융기관 직원이 방문하여 퇴직공제제도 상담,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및 건설올패스 카드 발급을 당일 진행토록 하여 제도이행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장성호 광주지사장은 "건설근로자의 업무 여건상 평일 업무시간 중에 공제회나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북개발공사, '청렴 다짐 릴레이 챌린지' 출발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임직원 스스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청렴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다지기 위하여 '청렴 다짐 릴레이 챌린지'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렴 다짐 릴레이 챌린지'는 공사 임직원들의 청렴 실천 의지 강화를 위해 이달 13일부터 최정호 사장을 시작으로 청렴 다짐 문구 작성하여 인증 후 사내 게시판에 올리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일회성이 아닌 전 직원과의 소통과

공유로 청렴 인식을 제고하고 내부 청렴도를 높이고자 참여·실천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공사 최정호 사장은 '청렴 다짐 릴레이 챌린지' 다음 참여자로 사육을 찾아주시는 내방객과 임직원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앞장서서 노력해주시는 전현직 사육 시설관리소장을 지명했다.

한편 공사 최정호 사장은 기관장이 직접 주관하는 청렴회의에서 기관장 스스로 청렴을 강조, 직원들은 공경하



전북개발공사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청렴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다지기 위하여 '청렴 다짐 릴레이 챌린지'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 객관적이며 엄정한 업무 추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9일 남원시 아영면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 돕기에 나섰다.

농어촌공, 영농철 맞아 농가 일손돕기 나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정문)는 지난 9일 남원시 아영면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 돕기에 나섰다

고 10일 밝혔다. 전북본부와 남원지사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과농가를 방문해 사과 수확 작업을 함께하고, 주변의 영농폐자재(폐비닐, 농약병) 수

거 등 마을환경 정비를 일손돕기를 마무리했다. 이정문 본부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농촌일손돕기를 통해 농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